

[그래픽 이슈]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2011.6.23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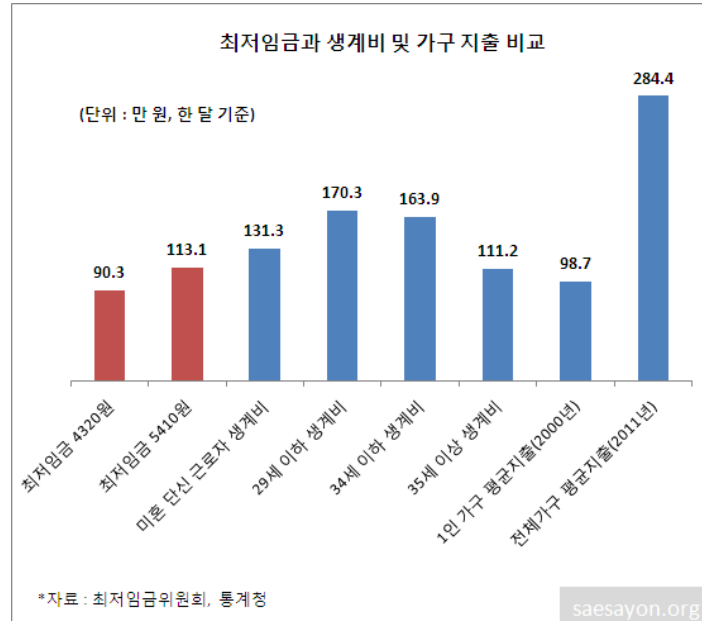
-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 10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0%, 최저임금 인상률 9.3%
- 중소기업 제조원가 중 임금 비중은 11%에 불과



<http://saesayon.org>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1.



□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당 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 90만 28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113만 690원이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조사 발표한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2010년을 기준으로 131만 2755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지출이 110만 2602원이며, 비소비지출¹⁾이 21만 153원이다.
- 연령에 따른 미혼 단신근로자의 소비지출은 29세 이하가 170만 2576원, 34세 이하가 163만 9140원, 35세 이상이 111만 1550원으로 젊은 단신 근로자일수록 생계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112만 4천 원이며, 지출은 98만 7천원이었다. 한 편 2011년 1사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346만

1)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의무적 지출과 가구간 및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을 뜻한다.

1천 원, 지출은 284만 4천 원이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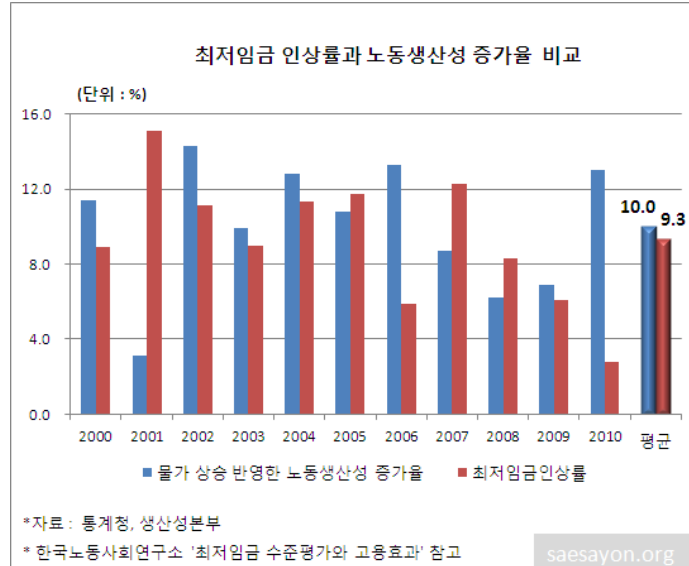


표1.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 반영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2000	8.9	9.1	2.3	11.4
2001	15.1	-1.0	4.1	3.1
2002	11.1	11.5	2.8	14.3
2003	9.0	6.4	3.5	9.9
2004	11.3	9.2	3.6	12.8
2005	11.7	8.0	2.8	10.8
2006	5.9	11.1	2.2	13.3
2007	12.3	6.2	2.5	8.7
2008	8.3	1.5	4.7	6.2
2009	6.1	4.1	2.8	6.9
2010	2.8	10.1	2.9	13.0
평균	9.3	6.9	3.1	10.0

* 자료 : 통계청, 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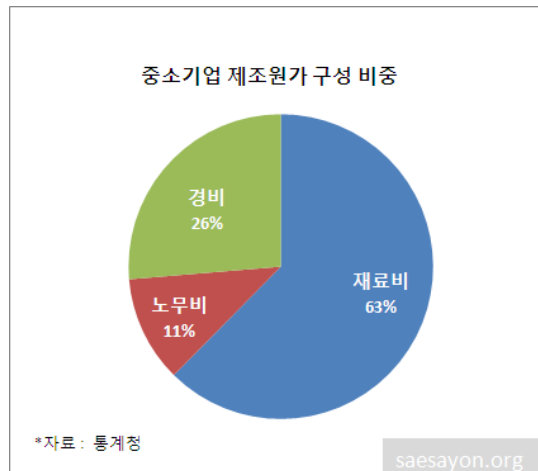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 참고

□ 10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0%, 최저임금 인상률 9.3%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물적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표1과 같다. 물적노동생산성은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며 노동투입량(근로자수×근로시간) 대비 산업생산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노동으로 인해 창출된 생산성을 측정한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9.3%이다. 물적노동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6.9%이며, 여기에 소비자물가의 평균 상승률인 3.1%를 더하면 10.0%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 중소기업 제조원가 중 임금 비중은 11%에 불과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총 355조 원 가량이며 이 중 재료비가 63%, 경비가 26%, 노무비가 11%이다. 노무비 전체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았을 때 제조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인 셈이다. 즉, 만약 임금이 10% 상승할 때 제조원가의 상승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역시 이 정도 수준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